

가정주부들은 자신들이 '간헐 산다'고 말한다. 주부의 행동반경이 독자적인 계획보다는 가족들의 생활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데서 비롯되는 표현일 것이다.

여자들의 외출은 가족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갓난 아기의 엄마들은 가까운 거리라도 한번 집 밖을 나서는 일이 큰 일이어서 웬만하면 외출을 잊고 산다.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들은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은 아이들 때문에 외출을 하더라도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쏙 빠진 채 시간을 보내다가 재빨리 귀가길을 서두른다. 국민학생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도막 외출'을 즐긴다. 중고생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시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학입시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 마음에서 묶여 있는 입장이다. 하루 이상 집을 비우는 외출은 아이들 도시락 때문이라도 힘들 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불안해서 하기 힘들다.

가장 외출이 자유로운 나이 '할 일 다한' 40대 중반

외출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대는 큰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인 40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의 책임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자타가 공인해주는 시기가 오면 여자들은 서서히 긴 외출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게 모임의 친구들과 이나 동창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시기도 이때부터다. 전에는 점심 먹는 정도던 모임들이 1박2일, 2박3일 온천 여행으로 발전하고 10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여행을 훌쩍 떠나기도 한다.

올해로 고교 졸업 30년을 맞은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 15회 동창회 모임에도 여자 동창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여자들의 외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성공한 어머니들의 화려한 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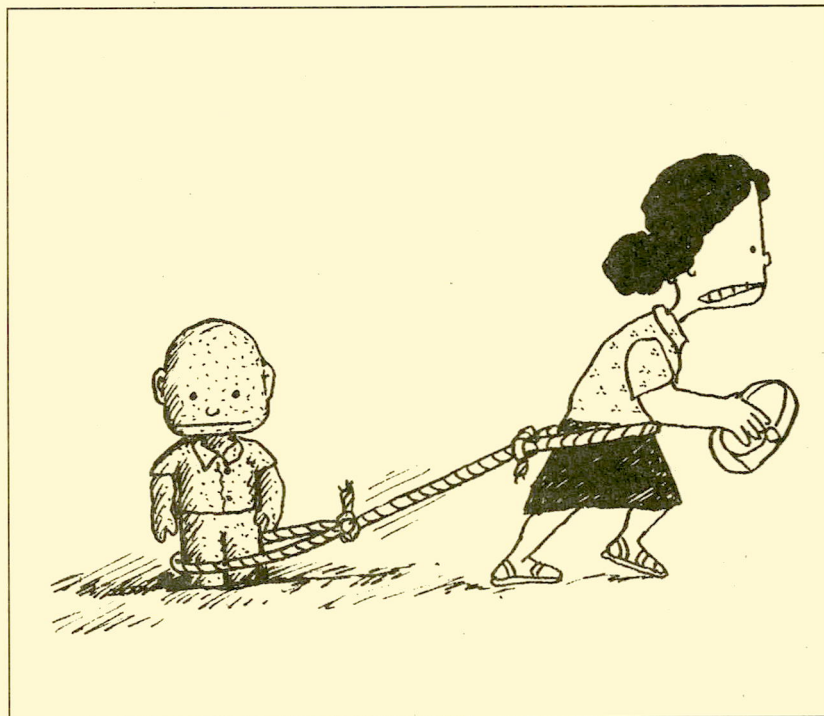
큰소리 칠 기반 있어야 외출도 당당하다

남녀공학이었지만 남자고등학교처럼 남자 동창들 중심으로 움직여 오던 동창회에 여자동창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사대부고 동창회는 형식적인 모임을 떠나 즐거운 모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백여명 동창들이 모이면 70명 가량은 여자들이 자리를 채우며 따라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감투직에도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동창회의 '우먼파워'는 동창회보를 발간하기 시작하더니 여자회장 선출 제안도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30대부터 친한 사람끼리 삼삼오오 따로 모이던 여자들이 동창회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서로 자기 자랑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단계는 다 넘어섰어요. 지금도 가끔 자기 집 잘 사는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아서 말한 사람이 우스워지는 분위기가 돼요. 자기 껌테기를 벗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정말 편안한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15기 한 여자 졸업생의 말이다.

나만의 여행, 즐거움 만끽 해외 참석도 활발해

5월달에 이 동창회는 모교에서 30주년을 기념해 '홈 커밍 데이' 행사를 했다. 모교 운동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할 때 여자동창 중에는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응원을 지도하기도 했



다.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날아온' 동창들도 있었다. 9명이 미국에서 참가했는데 이중 7명이 여자 동창. 그나마 남자동창들은 행사가 끝나고 금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자동창들 전원은 오랜만에 만나 금세 헤어지기 '쉽습다'고 해서 3일간의 여행까지 참여하면서 "끝까지 놀고 갔다"는 것. 미국서 온 여자동창은 "평생 남편의 일로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이번에 동창회 참석을 위해 생전 처음 나만의 일로 비행기 타고 오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전했다.

올해로 52세인 이화여고 60년 졸업생들도 3년 전에 졸업 30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때 미국에서 참석한 여자동창들은 28명이

었다. 졸업 33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한국의 동창들 28명이 12박13일간의 미국여행으로 동창회를 가졌다. 뉴욕에 조직된 지부에서 동창회 모임을 하고 있자니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동창생들이 모여들더라는 것.

한때 자신감에 가득찬 소녀시절을 가진 중년여성들이 결혼한 이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자기 이름조차 불리워질 기회도 갖지 못했다가 아무개 이름을 가진 개인으로 동창회에 참여하는 시간이란 신선한 충격이 된다. 또 과거의 명문여고 졸업생들이라면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잊고 살았던 학벌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길 수도 있으니 여자들에게 동창회

모임의 효용이란 남자들은 다른 부분에서 찾아질 수 있다.

과시욕 벗어나면 제일 편안한 친구들

한창 아이를 키워야 할 무렵 여고동창회는 과시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가끔씩 TV 드라마에 희화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중년 여성들의 자기자랑, 그것이 싫어서 동창

회를 멀리해 왔던 여성들도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순수한 그리움 때문에 동창들을 만나고 싶어하기도 한다.

67년에 여고를 졸업하고 올해 45세가 된 김 모씨는 그동안 "동창회랍시고 여자들이 모여 앉아 보석자랑, 옷자랑 하는" 것이 싫어서 동창회 모임과 담을 쌓고 지내왔던 사람이다. 같은 느낌을 가졌던 친한 친구들과 과한 개별적으로 만나왔던 김씨는 '이제는 친구들이 다들 성숙해졌을 것이므로 기회가 있다면 동창회에 나가볼 생각도 난다'고 말한다.

여자들의 동창회가 치기어린 과시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대 중반 정도의 연륜이 필요한 모양이다. 이 시기 이후

에 여자들의 동창회가 활발해지는 이유에 대해 여성학 강사 구훈모(상명여대) 씨는 "이 시기가 되면 여자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 50대는 가족에게 헌신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죄책감까지도 느끼는 세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생각도 못해 본 채로 살아왔지요. 해외여행이 시작되는 건 40대 중반, 아이들이 대학 입학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막내까지 대학엘 들어가면 할 일 다했으니 한가지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못한 게 뭐 있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더 나이 들면 여행을 다닐 기력도 없을 테니 기회를 만들어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어머니로 성공해야 자유외출이 주어진다

가족들 식사 준비 한 끼를 거르는 데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노심초사 살아 오던 여성들이 50대에 보여주는 당당한 외출은 무척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인생의 성공은 어머니 역할 완수에 있는 모양이다. 한국 여성들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저런 눈치 속에서 귀족은 듯이 살아가다가 어머니로서의 성공이 확보된 듯한 시기가 되면 목소리도 커지고, 배짱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게으름이 없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급격한 노화가 시작되는 50대라는 나이. '성공한 어머니'라는 지위에 주어지는 보상을 누리기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소진해 버렸다.

50대 여성들의 화려한 외출에 웬지 숙연함이 느껴지는 것은 외출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김효선 기자)